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의 논리성

장 순 전

목 차

I. 헤겔의 “관념변증법”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유물변증법의 비판과 수용

II.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의 논리성

1. 내용의 논리
2. 관계의 논리
3. 운동, 발전의 논리

III. 헤겔 변증법의 계승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 변증법

참 고 문 헌

I. 헤겔의 “관념변증법”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유물변증법의 비판과 수용

철학사의 발전을 통해 볼 때, 새로운 이론을 내세우는 철학자는 앞 선 철학자의 이론을 다소는 의도적으로 곡해하면서까지 그것을 비판 공격하고 그것과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이론의 창조성을 부각시키지만, 그의 이론이 발생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앞 선 이론의 영향 하에 놓여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칸트와 헤겔의 철학이 그러했듯이 마르크스주의 철학은 헤겔 철학을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하지만 그 만큼 헤겔 철학에 빚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 선 이론을 실질적,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보다 발전된 이론을 제시하는 일은 앞선 이론의 역사적으로 제약된 한계를 폭로하는 동시에 그 역사적 공헌에 주의하여 그로부터 “합리적 핵심”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무엇보다도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대가들은 이 점을 잘 의식하고 있었다. 마르크스의 헤겔 변증법에 대한 평가가 이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헤겔 변증법의 신비적 측면에 대해서 나는 약 30년 전 그것이 여전히 유행하고 있을 무렵에 비판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내가 막 《자본》 제 1 권을 완성했을 때, 지금 개명된 독일에서 큰소리치고 있는 불손하고 견방지고 범속한 아류들이

2 강 순 전

헤겔을 마치 레싱(Lessing)시대에 용감한 멘델스존(Moses Mendelssohn)이 스피노자(Spinoza)를 다루었던 것처럼, 즉 ‘죽은 개’처럼 다루면서 우쭐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공공연히 나 자신이 저 위대한 사상가의 제자라고 공언하였으며 심지어는 가치론에 관한 장(章) 곳곳에서 그의 특수한 표현방식에 영향하기까지 하였다. 변증법이 헤겔의 수중에서 신비화되었지만, 이것이 그가 변증법의 일반적인 운동 형태를 처음으로 포괄적이고 의식적인 방식으로 서술하였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¹⁾

엥겔스 또한 그의 저서 『포이어바흐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에서 헤겔 관념론을 비판한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이 형식론에서(유물론적 입장에 서 있다는 점에서)는 옳지만 내용면에서 헤겔 철학에 비해 얼마나 빈약한지를 지적하면서 포이어바흐에 의해, 헤겔 철학이 “아직 비판적으로 극복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포이어바흐는 체계를 분쇄해서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어떤 철학을 잘못된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더구나 민족의 정신적 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준 헤겔 철학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창조물을 그저 간단히 무시함으로써 그것을 제거할 수는 없다. 헤겔 철학은 그 자신이 말하는 바와 같은 의미에서 ‘지양’(aufgehoben)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 철학의 형식은 비판적으로 폐기되어야 했지만 이 형식을 통하여 획득한 새로운 내용은 살려내지 않으면 안되었다.”²⁾

엥겔스는 이 과제를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어떻게 수행했는가를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레닌은 헤겔의 저서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것들을 유물론적으로 득해함으로써 “합리적 핵심”을 추출해내고자 한 사람이다.

이같이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대가들이 헤겔 철학에 큰 관심과 비중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 마르크스주의”的 많은 철학자들에게서 헤겔은 실로 “죽은 개처럼 취급”당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많은 저서와 논문에서 헤겔 철학은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한 실질적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관념론”이라는 이단죄를 뒤집어 쓰고 송두리째 폐기되었다. 실로 “관념론”이라는 딱지가 붙는 이론은 잠꼬대와 같은 허튼소리로 간주되어 학문적으로는 일고(一考)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적 차원에서의 교조주의가 학문 탐구에 끼친 영향에도 원인이 있지만³⁾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

1) Marx, Das Kapital I.S.27. 이와 비슷한 평가가 엥겔스의 『포이어바흐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체계(Systems)의 요구가 이 경우에 그로 하여금 매우 종종 무리한 구성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구성에 대해서는 그의 보잘 것 없는 논객들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은 그가 세우는 건물의 틀과 발판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구성에 쓸데없이 정신 팔지 않고 그 용대한 건물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지금까지도 완전한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무수한 보물을 발견할 것이다.”(23쪽)

2) Engels, 포이어바흐와 독일 고전철학의 종말, 29쪽

3) 이점에 관해서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쓰여진 새로운 철학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철학적 문화를 단순화하고 그것의 요구 수준을 저하시키는 데에 또한 적지 않은 역할

다도 학문적 차원에서 찾아져야 하며, 필자는 그것이 헤겔 철학에 대한 <지양>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말해서 많은 마르크스주의 연구가들이 대가들의 연구 결과만을 기억하여 선언적으로 주장할 뿐, 구체적인 내용적 비판의 과정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의 진정한 의미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출발점은 마르크스가 앞에서 이미 “30년 전에”⁴⁾ 수행한 적이 있다고 말한 헤겔 철학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보여진다. 이 비판의 핵심은 헤겔 변증법과 철학 일반의 관념성을 철저한 유물론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인간은 현실적으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 제약되고 조건지워져 있는 “자연존재(Naturwesen)”로서, “인간 바깥에 인간과 무관한 대상들”을 노동을 통해 가공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리고 <자연적> 존재(원저자 강조)는 “자신의 자연을 자기 바깥에 갖고” 있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활동의 대상은 인간의 바깥에서 자신의 고유한 “자립적이고 현실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⁵⁾ 그런데 헤겔에게서 대상은 사유로서의 대상, 즉 (대상)의식이고, 주체는 자기의식이며, 이것들은 모두 대상의식이 자기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즉 대상의식과 자기의식, 객체와 주체의 통일로서의) 절대지의 계기들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의 소외와 소외된 대상의 자기복귀 행위는 모두 절대지 안에서만 일어난다.⁶⁾ 다시말해서 헤겔의 주체는 구체적인 자연존재가 아니라 그러한 인간의 추상물인 자기의식이며, 실재는 주체 바깥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식의 완성 형태인 절대지의 소외태로서 “정립된 것”에 불과하다. 때문에 마르크스는 헤겔의 대상 뿐만 아니라 주체의 활동도 감성적 대상적 활동으로 되지 못하고 추상적, 정신적 활동으로서 관념의 테두리 안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한다. 결국 마르크스의 헤겔 비판의 요점은 헤겔의 이론이 주관적 관념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고 관념 밖의 실재에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실성을 상실한 추상적 이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비판이 헤겔 철학을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채 한 철학자의 머리 속에서 이투어지는 자의적인 관념의 유희로 규정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물론 헤겔의 이론이 “관념론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자의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의 이론 전체를 한갓된 공상을 일삼는 “관념론”이라고 단죄하여 폐기하는 것은 계으른 자들의 비판일 것이다. 엥겔스가 철학의 근본문제로서 정식화한 관념론-유물론 구분에서의 관념론의 의미와 헤겔이 자신의 철학을 지칭하여 관념론이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사뭇 다른 것이다. 헤겔은 유한자가 아니라 무한자, 개개의 감성적 사물이 아니라 원리를 참된 존재자로 간주하는 모든 철학은 관념론(Idealismus)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

을 한 것은, 제대로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때때로 기본마저 되어 있지 않으면서, 공허한 혁명적 구호만을 큰 목소리로 낭발하고 과거 문화에 의해 창조된 것들을 극단의 비판주의의 이데올로기로 칼질해버리는 사람들이 철학과 기타의 인문과학의 영역을 활보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소비에트 연방 과학아카데미, 철학교과서 1, 358쪽

4) 1844년의 《경제학-철학수고》를 말한다.

5) 같은 책 130, 131쪽

6) 같은 책 126, 127쪽

4 강 순 전

르면 고래로 철학의 원리는 사유, 보편자, 이념적인 것(das Ideelle)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되고, 궁극적이며, 절대적인 것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철학은 관념론이며, 따라서 관념론과 실재론의 대립은 무의미한 것이다.⁷⁾ 이런 점에서 볼 때 헤겔 철학은 엥겔스가 말하는 관념론이라는 의미보다 <이상주의 Idealismus>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개별자를 전체의 계기로 보고, 개별자가 아니라 그것이 발전을 통해 도달할 이상으로서의 전체를 진리로서 파악하는 헤겔철학은 이상주의이다. 실제로 헤겔의 절대정신은 더이상 인간적 주관이 아니라 세계법칙으로서의 원리이며, 비록 그것이 “관념적으로” 표현되었다 할지라도 개별적 인간주관의 자의로부터 독립해 있는 객관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⁸⁾ 따라서 헤겔 철학에 대한 비판은 관념론적이나 유물론적이나는 형식적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는 데에만 그쳐서는 안되며, 더 나아가 그의 철학이 고유한 관념론적인 형식을 뼈으로써 내용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객관적 현실성에 미치지 못하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헤겔 변증법의 공적은 무엇보다도 인류문화에 대한 연구로부터 인간사유의 참된 논리적 형식과 법칙을 추출해냈다는 점에 있다. 헤겔 철학이 허튼 잡꼬대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한에서, 헤겔철학은 객관적 사태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헤겔이 객관적 사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탐구를 통해

7)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I. 2판, S. 142.

헤겔에게서 이념적인 것(das Ideelle)이란 우연적인 개별자가 아니라 필연적인 보편자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자는 한갓된 이름뿐인 것(유명론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것(실재론의 주장)이다. 이같이 이념적인 것(das Ideelle)이 실재한다는 점에서 헤겔은 관념론(Idealismus)과 실재론의 대립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한편 참다운 보편자가 어디에 어떻게 실재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다시말해서 그것이 심적인 것, 즉 개별적인 주관 안에 있는 것인가 혹은 물적인 것, 즉 개별적인 주관과 독립하여 그 밖에 존재하는 것인가는 두번째 문제이다. 그런데 헤겔의 이념적인 것 (das Ideelle)은 주객의 일치, 존재-사유의 일치라는 그의 철학적 지평에서 볼 때, (따라서 본문에서 ‘사유’도 존재의 내용과 일치하는 한에서의 사유의 내용, 즉 존재-사유 일치로서의 진리를 말한다) 주객 분리 이전의 고대철학적 의미에 가깝지만, 마르크스주의의 관념적인 것(das Ideelle)은 근세의 주객 분리의 철학적 지평에서 데카르트, 록크, 훔이 저 이념적인 것(das Ideelle)을 개별적 주관 안에 있는 관념(idea), 표상으로 재한했을 때의 의미에 가깝다. 말하자면 헤겔에게서 이념(Idee)이 단지 진리의 내용으로서의 <보편자>를 의미하는데 반해, 마르크스주의에서 관념(Idee)은 개별적 <주관>의 표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자에게서 ‘Idee’의 내포는 서로 다른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진리를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이나 원리로 본다는 점에서, 그리고 헤겔의 참다운 보편자가 개별적 주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주 8참조)에서 마르크스주의 유물론과 헤겔 관념론은 그리 멀지 않다.

8) 필자는 “헤겔 변증법의 논리성”에 관한 앞선 연구에서, 헤겔에게서 “보편적 사유로서의 객관 세계의 법칙은 개별주관들의 의도, 목적 등의 현실화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긴 하지만, 개별 주관의 자의에 의해 결정되는 주관적 규정이 아니라 개별주관들의 조정을 통한 집단적 의식에 상응하는 대상적 규정이며, 오히려 개별주관의 사유가 그것에 따라야하고 그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객관적 한계로서, 개별적, 주관적 의식에 대립해 있는 것”임을 지적하였다.(강 순 전, “헤겔 변증법의 논리성”, 철학연구 27집, 278쪽)

그 논리적 내용을 길어 옮렸기 때문일 것이다. 이 논리적 내용의 핵심을 엥겔스는 명확한 논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변증법적 철학에는 종국적 의의를 가지는 것, 절대적인 것, 신성한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 이 철학은 모든 것이 필연적인 멸망의 운명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철학 앞에는 발생과 소멸, 보다 낮은 것으로부터 보다 높은 것으로 의 무한한 상승의 부단한 과정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⁹⁾

엥겔스가 방법의 측면에서의 진보성이라고 평가한 이러한 논리성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어떤 절대적인 진리로서 완결되어야 하는 철학체계”에 대한 욕구때문에 “영원한 진리란 논리적, 역사적 과정 자체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라고....강조하여 온 헤겔 자신이 이제 와서는 이 논리적 과정에다 종지부를 찍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헤겔은 절대지, 절대이념, 절대정신 등 “절대”라는 개념으로 상대적 대립극들의 통일과 대립을 통해 발전하는 역사적 과정에 종결점을 찍음으로써, 체계의 독단적 내용과 온갖 독단적인 것을 해체하는 변증법적 방법 사이에 모순을 빚게된다.¹⁰⁾

이러한 체계의 독단화는 사유의 절대화와 관련되어 있다. 앞에서 말한 헤겔의 공헌과 함께 비판받아야 할 점은 그가 인간사유의 논리적 형식과 법칙을 절대화함으로써 인간사유의 기원에 대한 물음의 가능성을 봉쇄해버렸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사유의 기원을 탐구하지 않은 채, 헤겔은 인류 문화의 다양한 형식을 인간의 사유능력의 결과로만 간주하였다. 때문에 인간사유의 근거가 인간의 대상적, 감성적 활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겔은 사유의 차원만을 고려하여 그것으로 완결된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이론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다. 첫째 헤겔은 사유의 차원을 절대화하여 완결된 체계로 만들었으므로써, 발전의 종착점에 이르러서야 완성되는 절대자의 자기진개라는 “관념론적” 형식으로 이론을 서술하는데, 이때 절대자의 운동은 연역적으로 완결적인 논리적 과정으로 되어 역사적 과정을 종종 변형시키게 됨을 볼 수 있다. 헤겔이 당시까지의 과학, 기술, 도덕 등 인류문화의 제반 현상들에 대한 실증적 탐구에서 얻은 지식들로부터 사태의 올바른 논리를 추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을 절대적 진리의 체계로 완성하려는 마당에서 그는 더 이상 사태의 논리에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의 사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헤겔의 자의성은 여기에서 나타난다.

첫번째 문제점은 두번째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야기된 것인데, 두번째 문제점이란 사유의 근거와 관련된 물음의 부재에 있다. 논리학의 주제가 되는 보편적 사유, 즉 집단의식은 개별적 사유의 자의로부터 독립해있는 객관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 보편적 사유로서의 문화적 형식들은 추상적인 사유활동만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적 실천, 즉 감성적 대상적 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논리적 범주인 보편적 사유의 내용은 인간의 감성적 대상적 활동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만 진정하게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헤겔도 실천을 논리학에 도입한 최초의 사람이며¹¹⁾ 레닌도 마르크스가 실천이라는 기준을 인식론에 도입할 때

9) Engels, 앞의 책, 20쪽

10) 같은 책 21쪽

6 강 순 전

헤겔을 실마리로 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¹¹⁾ 그러나 포이어바흐에 관한 첫번째 테제에서 마르크스는, “현실적, 감성적 행위 자체를 모르고 있는” 헤겔 관념론에서 행위적 측면(형 이상학적 유물론에서 파악하지 못한 주체적, 행위적 측면)은 단지 “추상적으로만 발전”되었다고 말하고 있다.¹²⁾ 또한 그는 다른 곳에서 ¹³⁾ 헤겔이 노동의 본질을 파악하긴 하였지만 헤겔이 인정하는 노동은 “추상적 정신적 노동”일 뿐이라고 비판하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대로 헤겔의 노동(행위, 실천)이 관념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헤겔은 대상을 주체에 의해 정립된 주체의 소외태로만 보기 때문에 주체의 행위에 의한 대상의 자기화는 소외뿐만 아니라 대상성 자체까지도 지양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구도로는 일정한 역사적 조건 (가령, 자연발생적으로 발달된 사회적 분업)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인간활동의 산물과 인간 사이의 전도현상인 소외 (헤겔의 단순한 외화라는 의미의 소외가 아니라 물상화로서의 소외)라는 현실적 관계를 올바로 파악해낼 수 없게 된다. 마르크스의 비판대로 헤겔이 노동의 긍정적 측면만을 보았을 뿐 객관적 현실의 하나인 노동의 부정적 측면을 보지 못한 것은 결과로서 드러난 사유의 형식과 법칙에만 관심을 제한하고 그 근거로서의 인간의 감성적, 대상적 활동에 대한 주의를 지속적으로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유의 형식과 법칙은 그 근거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탐구를 통해 생명력을 유지하지 않고는 현실과 동떨어진 구태(舊態)의 것으로 고정되어 버린다. 사유의 형식과 법칙으로서의 논리적 카테고리는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사태의 흐름에 따르는 유동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헤겔 변증법의 핵심적인 논리성임에도 불구하고, 헤겔은 사유와 사태를 연결하는 인간의 감성적 대상적 활동에 주목하지 않은 채 사유의 차원을 절대화하여 논리적 과정을 종결짓는다. 그리하여 논리적 과정은 독단적 체계 안에 갇히게 되고 다소의 자의성을 떠면서 현실의 역사적 과정과 분리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 철학자는 문제에 대한 완결된 해결을 제시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론을 절대적인 진리의 체계로 구축한다. 이것은 어쩌면 한 시대를 사상으로 포착하는 대가들에게 공통된 현상이며, 마땅히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한 시대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선 그것의 역사적 공헌과 한계를 다같이 밝혀야 한다. 헤겔의 모순은 엥겔스의 표현에 따르면 열려진 방법과 폐쇄적 체계 사이의 모순이다. 헤겔 비판은 이 폐쇄적 체계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추어지는데, 이것은 첫째 “관념론적” 형식의 비판과 둘째 이것이 결국 종사하게 되는 체계의 폐쇄성을 대한 비판이다. “관념론적” 형식은 체계의 폐쇄성을 만들어내고, 그럼으로써 또한 방법의 개방성과 “혁명적 성격”을 은폐하고 있다. 따라서 “관념론적” 형식의 비판은 그 체계의 내용적 비판에까지 나아가야 하며, 이 “관념론적” 신비의 외피로부터 “합리적 핵심”을 추출해내기 위한 “전도”的 방법도 그저 용어만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의 분석과 비판의 작업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헤겔 철학을 그저 “관념론”이라는 이름 하에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이러한 복잡한 수술을 가하는 것은, 엥겔스의 말대로 헤겔 철학이 “형식은

11) 강 순전, 앞의 글, 276쪽-280쪽 참조

12) Lenin, Philosophische Hefte, S.202

13) Marx, Thesen über Feuerbach, 1

14) Marx, 경제학 철학 수고, 126,127쪽

관념론적이지만” 오히려 현실적 형식 위에서 있는 포이어바흐의 철학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¹⁵⁾ 마르크스와 엥겔스와 레닌은 헤겔 철학의 역사적 공헌과 한계를 올바로 진단하고 비판함으로써 헤겔 철학의 “합리적 핵심”을 수용하여 그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그 “합리적 핵심”이란 특히 변증법적 방법을 의미하며, 따라서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은 헤겔변증법의 연속선 상에서 더욱 발전되고 구체화된 변증법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의 논리성은 헤겔 변증법과의 연속선상에서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이 헤겔 변증법의 어떠한 점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촛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회르츠(H. Hötz)는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의 분야를 객관적 변증법과 주관적 변증법, 그리고 그 사이에 인식과정의 변증법을 두어 셋으로 나누고 있다.¹⁶⁾ 객관적 변증법이란 객관적 세계, 즉 자연과 사회의 구조, 과정 및 발전연관을 탐구하는 것이며, 주관적 변증법이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객관적 변증법이 사유 속에 반영된 것이고, 인식과정의 변증법은 모사와 객체의 관계 및 진리문제와 관련하여 인식의 조건, 과정, 결과들을 탐구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용어로 첫번째 영역은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번째는 논리학, 세번째는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관적 변증법, 즉 “개념의 변증법 자체는 현실세계의 변증법적 운동의 의식적 반영에 불과한 것”¹⁷⁾이며 개념변증법에서도 객관적 변증법이 관철되기 때문에, 변증법적 논리에 대한 탐구는 주로 객관적 변증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주관적 변증법에 고유한 독자적인 탐구 주제는 과학의 개념이나 이론을 탐구하는 과학의 논리, 탐구의 논리에 국한되고 있다. 한편 마르크스주의는 유물론이기 때문에 인식과정의 변증법은 매우 중요한 분야로 등장한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관념론이 존재와 사유의 동일성을 원리로 삼았던데 반해 유물론은 의식과 물질의 대립을 원리로 삼고 있으며¹⁸⁾, 따라서 전자에서는 양자의 매개가 무시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지지만, 후자에서는 양자를 매개하는 인식 내지 실천의 개념이 중시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관념론은 존재와 사유를 원리적으로 일치시키지만, 유물론은 의식과 독립적으로 물질이 외부에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실천이라는 매개를 통해서만 의식과 물질의 일치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세계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실천은 유물론의 중요한 원리가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식과정의 변증법은 헤겔에게서와는 달리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주관적 변증법과 인식과정의 변증법은 주제적으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 글은 “헤겔 변증법의 논리성”에 관한 연구의 후속 연구이기 때문에 주로 객관적 변증법을 중심으로 변증법적 논리의 핵심적인 골간을 밝히고자 한다. 필자는 헤겔 변증법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의 논리성도 내용의

15) Engels, 앞의 책, 52쪽

16) Hötz, Marxistische Philosophie und Naturwissenschaft, S.315. 이하

17) Engels, 앞의 책, 64쪽

18) 필자는 의식적으로 관념론에는 존재와 사유, 유물론에는 의식과 물질이라는 켤레개념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는 엥겔스가 철학의 근본문제에서 존재와 사유라는 켤레개념을 사용한 것 이 헤겔 사변철학의 잔재이며 불명확한 구분이기 때문에 물질-의식이라는 켤레개념의 사용이 더 적절하다는 레닌의 수정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8 강 순 전

논리, 관계의 논리, 운동·발전의 논리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글의 논의 전개는 앞 선 연구의 논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용의 논리와 관계의 논리는 상대적으로 간단히 다루어질 것이며,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에서 가장 중시되는 모순개념을 중심으로 운동·발전의 논리로서의 변증법의 논리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II.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의 논리성

1. 내용의 논리¹⁹⁾

변증법이 내용의 논리임은 형식논리의 형식성과 대조되어 드러나는 특성이다. 헤겔은 존재-사유 동일성의 논증을 통하여, 즉 존재의 과정이 곧 사유의 과정임을 보여줌으로써 사유의 형식인 논리적 카테고리가 존재의 내용을 지니고 있다는 변증법의 논리성을 확정하였다.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에서도 논리적 카테고리는 자연 및 사회의 객관적 과정과 내용상 일치하지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존재와 사유의 <동일성>이 아니라 물질과 의식, 객관적 실재와 관념적인 것 간의 <통일> 개념을 통하여 변증법이 내용의 논리임을 확증한다.²⁰⁾ <통일>이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는 존재와 사유가 관념론에서처럼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의식이 실천(인식)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관념적인 것이란 인간 두뇌 속으로 옮겨져서 번역된 물질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관념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관계에 대한 유물론적 정식을 제시하였다.²¹⁾ 그러나 여기서 관념적인 것을 낡은 유물론자들의 견해처럼 두뇌의 물질적, 신경생리학적 구조 및 기능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결코 관념적인 것을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물질적인 과정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뇌의 도움으로 사회적 생산을 수행하는 인간의 감성적, 대상적 활동 속에서 발생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다시 말해서 관념적인 것이란 두뇌 속에서만 발생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뇌의 도움으로 인간이 대상에 가하는 사회적 활동의 형식에 대한 의식적 표현, 즉 인간의 사회적 활

19)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에서는 객관적 형식의 의식적 반영인 변증법적 카테고리가 객관적 내용을 담지하는 것이 오직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절에서 다루어질 논의의 대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세 분야 중 인식 과정의 변증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된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 논리적 카테고리가 대상적 규정과 상응한다는 점이 해명되면, 2, 3절에서 다루어질 객관세계의 보편적 형식에 대한 탐구(객관적 변증법)가 사유의 학(변증법적 논리학)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취급되는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20)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에서도 변증법, 논리학, 인식이론이 일치하지만, 그 일치는 헤겔과 같은 동일성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통일로서의 일치임이 강조된다. Oisermann의 논문 “Lenin und die Hegelsche Konzeption der Einheit von Dialektik, Logik und Erkenntnistheorie”를 참조

21) Marx, Das Kapital I. S.27.

동(이것은 물질적인 것)의 형식이 의식 속에 반영된 것이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도 이같이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관념적 상을 가지고 대상에 작용을 가하기 때문이다. 만약 관념적인 것이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과정과 동일시 된다면,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원리적으로 아무런 차이도 없게 된다. 왜냐하면 끊임이 짓는 벌집도 중추신경에서 계획된 곤충의 활동유형, 즉 관념적 상에 따라 지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끊임의 관념적 상은 해부학적 신체 조직과 함께 유전되지만, 인간활동의 어떠한 형식이나 능력도 해부학적 신체 조직과 함께 유전되지는 않는다. 인간에게 있어서 관념적 상은 선행하는 인류로부터 전수받은 인간활동의 <사회적> 형식의 의식적 표현이며, 이러한 관념적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형편없는 건축가라 할지라도 가장 훌륭한 끊임보다 나은” 것이다.

☞

이같이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관념적인 것이 인간의 사회적 활동형식과 결합되어 있다. 의식은 인간의 물질적인 활동을 통해서 작동한다. 따라서 의식이 직접 물질에 작용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도움을 얻은 인간의 물질적 활동이 객관적 세계에 작용을 가하는 것이다. 이 의식적 인간활동은 객관세계의 구조와 형식 및 과정을 드러내거나, 객관세계를 변형시켜 그 산물을 만들어낸다. 전자는 인식행위이며, 이것은 실천을 통해 객관세계를 의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의 상은 객관세계의 상에 상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객관 세계의 상은 인간활동의 상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인식의 상과 객관세계의 상이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식의 상, 의식적 인간활동의 상은 역사적으로 제약된 것이기 때문에 객관세계를 완전하게 반영할 수 없고 단지 개략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뿐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의 한 계기이다. 한편 의식적 인간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의 객관적인 상은 당연히 인간활동의 상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객관세계의 상은, 그것이 인간활동의 산물이든 인간활동에 선행하여 인간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든 간에 모두 인간활동의 상과 상응한다. 그런데 이 의식적 인간활동의 <보편적 형식>,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인간활동의 보편적 형식에 대한 의식적 표현이 다름 아닌 변증법적 논리학의 카테고리이다. 그리고 인간활동의 보편적 형식은 곧 객관적 세계의 보편적 형식이기 때문에, 변증법적 논리학의 카테고리는 객관적 세계의 보편적 형식이기도 하다.

마르크스주의에서 관념적인 것의 내용은 인간의 물질적 활동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보편적 형식에 관한 학인 논리학은 한갓된 사유상의 형식적 과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성적 대상적인 실천활동의 형식에까지 나아간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논리학의 대상으로 되어왔던 사유개념은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적 논리학에서는 의식적 인간활동의 보편적 형식으로까지 확장된다. 한편 이 활동 형식은 객관세계의 반영형식이기 때문에, 인간활동의 보편적 형식은 객관적 세계의 보편적 형식의 반영이다. 그런데 정확히 말해서 논리적 카테고리는 인간활동의 보편적 형식이 의식속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 카테고리는 인간 활동의 보편적 형식을 매개로 하여 객관 세계의 보편적 법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은 실천을 매개로 하여 의식과 물질을 통일시키고 있으며, 그 방식은 실천을 통해 물질을 의식 내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물변증

10 강 순 전

법의 논리적 카테고리는 한갓된 사유만의 규정이 아니라 물질세계의 대상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2. 관계의 논리

헤겔에게서 변증법의 대상인 참다운 존재로서의 절대자는 자신의 계기들의 총합, 즉 관계들로 이루어진 구체적 총체성이었다.²³⁾ 다시 말해서 존재의 총체적 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변증법은 관계들의 총합으로서의 전체를 문제 삼기 때문에, 변증법의 대상은 자기동일적으로 완성된 사물(여기에만 머무는 오성적 사유는 일면적이고 제한되어 있다)이 아니라 사태, 즉 사물들의 관계이다. 마르크스주의는 헤겔 변증법의 이러한 성격을 변증법의 핵심적인 논리성으로서 수용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철학교과서들은 사물들을 상호연관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엥겔스가 정식화한 변증법적 유물론의 세가지 기본법칙과 나란히 기본법칙 속에 포함시키거나²⁴⁾ 유물론적 변증법을 보편적 <연관>과 발전의 과학으로서 서술하고 있다.²⁵⁾ 또한 회르쯔도 변증법을 “자연, 사회 및 사유에서의 구조, 변화, 발전의 보편적 <연관>에 관한 학”²⁶⁾(필자 강조)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같이 변증법이 탐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단위는 개체로서의 사물이 아니라 사물들이 맺고 있는 관계이며, 개체로서의 사물도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로 분석하여, 그 요소들 간의 관계를 통해 규정한다.²⁷⁾ 따라서 변증법에서 지칭되는 <사물>은 자기동일적으로 완성된 고정적 단위가 아니라 <관계들의 복합체로서의 질, 혹은 체계>를 의미하며,²⁸⁾ 이것들은 또 다른 질, 체계와 관계를 맺고 있다. 이같이 변증법적 사고는 개체를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23) 강 순전, 앞의 글, 267쪽

24) 《세계철학사II》는 제2부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본법칙”이라는 타이틀 아래 “제물질의 상호 연관성의 법칙”을 포함하여 서술하고 있다.

25) 《철학의 기초이론》에서도 제5장 “보편적인 변증법적 발전 법칙”에서 엥겔스의 3대 법칙 앞에 “보편적 연관과 발전의 과학으로서의 유물론적 변증법”을 서술하고 있으며 《변증법적 유물론》(V.G. Afanasyev)은 변증법을 “발전의 이론”과 “보편적 연관의 이론”이라는 두 항으로 소개하고 있다. 스캔란(J.P. Scanlan)은 소련의 철학 교과서들에서 변증법의 원리는 논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규정되지만 “보편적 연관성과 발전의 원리”라는 두 항목이 언제나 으뜸임을 지적한다. (소련의 마르크스주의, 111쪽)

26) Hötz, 앞의 책, S. 315

27) 변증법이 존재하는 것을 두 대립극으로 형성되는 관계를 통해 고찰한다고해서 존재하는 것이 단지 대립극을 이루는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단지 다양한 요소들을 궁극적으로 두 대립극으로 구별하여 상호관계를 고찰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28) 사물이든 그 사물을 구성하는 개념적 계기들이든 간에 그것들은 두 대립극의 상호관계에 의해 그것들로 규정되며, 이 규정성이 그것들의 질이다. 헤겔 변증법에서 질은 존재의 총체적 규정이 아니라 가장 직접적인 규정이지만, 직접적이란 곧 기본적이라는 의미에서 유물변증법에서는 질이 존재의 규정을 대표한다. 소련의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변증법을 근대과학과 융합하려는 과정에서 변증법 해석을 들러싼 변증법파와 신기계론파 간의 논쟁이 야기되는데 “체계”란 이 논쟁의 산물로서 질개념을 과학적 설명을 통해 보완하려고 수용한 용어이다. (스캔란, 앞의 책, 124-133쪽)

파악하는데, 이것은 개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현상들을 그 연관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그 개별현상에 대한 총체적이고도 전면적인 인식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파나세프 (V.G. Afanasyev) 는 “대상들 및 현상들의 보편적 연관과 상호의존”이 “물질세계의 본질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을 얻으려면 그 대상의 모든 측면들과 연관들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²⁹⁾ 그러나 각 대상들이 모든 다른 대상들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변증법적 사고는 대상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적 연관에 대한 탐구라고 본다. 따라서 변증법적 탐구는 대상이 맺고 있는 여러 관계 중 우선 내적 연관과 외적 연관을 구별하고, 내적 연관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때 내적 연관과 외적 연관의 구별은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탐구의 관점에 따라 외적 연관이었던 것이 내적 연관으로 고려될 수도 있고 내적 연관이었던 것이 외적 연관으로 간주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같이 변증법이 탐구에서 내적 연관을 포착하려는 것은 그것이 사물의 발전을 규정하는 변증법적 연관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변증법적 연관은 내적 연관이다. 그리고 이 내적 연관은 발전 연관과 구조 연관이라는 두 측면을 가지고 있다. 엥겔스는 “관념론적” 외피로부터 해방된 헤겔 변증법의 위대한 사상은 “세계가 기성의 완성된 사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들의 총체”라고 파악한 점에 있다고 하였다.³⁰⁾ 여기서 엥겔스가 지적하고 있는 변증법적 연관으로서의 “과정”은 사물이나 관계가 발전하는 가운데 드러내는 여러 계기들 간의 연관, 즉 발전연관을 의미한다. 그런데 변증법의 근본사상은 사물이나 관계의 발전이 그것들 내부의 대립적 요소들 간의 모순적 갈등으로부터 빚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발전과정의 한 국면에 있는 사물이나 관계를 구성하는 대립적 요소들 간의 연관(구조연관) 또한 변증법적 연관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레닌은 “통일적인 것을 조개고 그것의 모순적인 구성부분들을 인식하는 것이 변증법의 본질”이라고 하였다.³¹⁾ 따라서 변증법적 연관에 대한 탐구는 통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시적으로도 수행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공시적인 구조연관은 시간 중에서 진행되면서 발전연관을 산출해내기 때문에 변증법적 연관은 결국 발전연관으로 귀착된다. 말하자면, 내적 관계를 서술하는 관계의 논리로서의 변증법은 운동·발전의 논리로 귀결된다. 또 공시적 구조연관의 질적인 변화를 야기시키는 모순은 운동·발전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처럼 관계의 논리는 운동·발전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관계의 최고 발전형태로서의 모순과 그것의 전개로서 드러나는 운동·발전을 함께 다루자한다.

3. 운동·발전의 논리

(1) 엥겔스가 정식화한 변증법의 세 가지 근본법칙

엥겔스가 변증법의 근본법칙을 “양의 질로의 전화 및 그 역의 법칙, 대립률의 상호삼투

29) Afanasyev, 변증법적 유물론, 34쪽

30) Engels, 앞의 책, 65쪽

31) Lenin, 앞의 책, S. 338

의 법칙, 부정의 부정 법칙”으로 정식화한 아래로 이 세 법칙은 마르크스주의 변증법 연구가들에게 변증법의 근본법칙으로서 거의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받아들여졌다. 엥겔스는 첫번째 법칙을 헤겔 《논리학》의 제1부 존재론으로부터, 둘째 법칙을 제2부 본질론으로부터, 세번째 법칙을 《논리학》 전체를 관통하는 논리로부터 도출해낸 것이라고 《자연변증법》에서 밝히고 있다.³²⁾

엥겔스는 가장 의식적이고 체계적으로 헤겔 변증법으로부터 변증법의 “합리적 핵심”을 도출하고자 한 마르크스주의자이므로, 엥겔스의 “도출”작업을 살펴보는 것은 마르크스주의가 헤겔 변증법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헤겔이 개념의 운동의 순수한 전개를 통하여 변증법을 개념적으로, 다시 말해서 존재론적, 형이상학적으로 정초했던 데 반하여, 엥겔스는 이러한 원리적인 탐구를 상당히 난해하게 서술되고 있는 《논리학》의 원리적 서술에 의존하기보다는 이 난해한 저서를 알기 쉽게 소개한 《엔치클로페디》에 기대어, 그것도 특히 헤겔이 강의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 설명한 내용인 주석(Zusatz)의 많은 예들을 법칙의 주요한 설명의 예들로서 받아 들이고 있다. 이 점은 한편으로 엥겔스가 그만큼 헤겔의 원리적 탐구를 신뢰하고 그 전제로서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주며, 다른 한편으로 유물변증법이 존재의 원리에 대한 “개념적”탐구보다는 현실적 사물과 사실에 대한 “실질적”탐구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다.

변증법에 대한 엥겔스의 작업은 우선 헤겔 변증법으로부터 변증법의 원리들을 도출하여 간명하게 정리하고 “과학적” 이론들의 예를 통해 그 원리들을 확증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그런데 엥겔스가 헤겔의 “신비적 외피”로부터 변증법의 “합리적 핵심”을 명확하고 간명하게 추출해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신비적 외피”이고 어디까지가 “합리적 핵심”인지에 대한 시비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하린(N.I.Bukharin) - 데보린(A.M.Deborin)논쟁인데, 이것은 유물변증법의 해석에서 헤겔적 요소를 궁정하려는 측과 근대과학 (특히 역학적모델)에 입각하여 그것을 부정하려는 측과의 대결을 의미한다. 이 대결은 소련에서는 궁극적으로 데보린주의의 승리로 끝났지만, 지금까지도 유물변증법과 관련하여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해석을 두 갈래로 갈라 놓고 있다. 말하자면 이 대결은 유물변증법 해석에 대한 두 가지 사고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헤겔식 표현으로는 한편은 “이성적 사유”에 다른 한편은 “오성적 사유”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후자의 입장 중에는 변증법과 유물론의 통합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한다. 이 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론하지 않겠다. 다만 엥겔스가 “신비적 외피”로부터 “합리적 핵심”을, 즉 《논리학》으로부터 세 가지 근본법칙을 도출해낸 데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기로 한다. 그러나 이 문제점의 제시가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 헤겔 변증법과 유물변증법의 단절을 확증하여 주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헤겔에게서 제시된 변증법의 이념에 대한 올바른 수용의 길을 제시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

엥겔스가 변증법의 첫번째 법칙으로 제시하는 양질전환의 법칙은 헤겔 《논리학》 제1

부 존재론의 제3편 한도(Mass)로부터 도출해낸 것이다. 이 법칙은 통상, 모든 변화는 양적 변화가 일정한 시점에 이르면 질적 변화를 야기시키고 질적 변화는 역으로 양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엥겔스는 이 법칙을 실재성을 가진 모든 존재, 즉 양과 질의 통일로서 한도를 가진 모든 존재에 적용되는 법칙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엥겔스와 그 이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동일한 총합 정식과 상이한 구조정식을 가진 화학적 결합의 경우나 상이한 온도에서 물의 형태변화 등 의 예를 통해 이 법칙을 예증하였다. 이 때 이 법칙의 적용 대상은 우선 양과 질의 통일체로서의 사물로 표상될 수 있다. 그런데 변증법적 사고는 사물을 관계들의 복합체로 보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설명은 그 관계들의 계기에 대한 설명에 까지 동일한 (변증법적) 사유방식을 관찰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양질전화의 법칙이 보편적인 변증법적 법칙이라면 한도로서의 사물 뿐만 아니라 그것의 구성계기 곳곳에 까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헤겔 『논리학』의 서술에서 한도 이전의 질의 각각의 계기, 양의 각각의 계기의 진행에서도 변증법은 관찰되나 그것은 양질전화에 의한 것은 아니다.³³⁾ 이 계기들의 진행의 원리는 오직 “대립물의 상호삼투”에 의한 것이다. 사실 헤겔이 『엔ც클로페디』의 주석에서³⁴⁾ 들고 있는 물의 상이한 온도의 예는 양질전화 자체를 변증법의 법칙으로 확증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현상이 보여주는 양질전화에서 양과 질의 “대립물”이 “상호삼투”하고 있음을 예증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 예는 한도에서의 양과 질의 모순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양질전화를 변증법의 보편법칙으로서 확증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변증법은 한도로서의 사물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계기들의 과정에서 관찰되어야 하므로, 엥겔스의 이 법칙은 변증법의 보편법칙이 아니라 한도를 가진 사물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경험적 법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엥겔스의 세번째 법칙 또한 모순에 의한 발전에서 항상 관찰되는 일반적인 법칙이 아니다. 헤겔 변증법은 목적론적 세계관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절대자의 자기목적의 실현, 즉 절대자의 자기발전의 계기들로 간주된다. 여기서 발전은 절대자의 가능성(an sich) 존재가 자신을 부정하여 자신의 타자를 정립하고 다시 이것을 자기 자신애로의 복귀시켜 자신의 계기로 삼음으로써 보다 풍부한 규정을 갖는 현실적(für sich) 존재로 됨을 말한다. 이러한 절대자의 자기복귀운동은 원운동으로서, 시초의 질과 운동을 통해 획득된 새로운 질은 같은 점(절대자의 규정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비교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부정의 부정의 운동에서 발전의 기준은 규정의 풍부화, 구체화, 복잡화이다. 반면

33) 헤겔은 사유의 각 계기를, 즉 개념의 변증법적 진행을 서술하지만, 엥겔스는 그의 예가 보여 주듯이 한도를 갖는 사물 단위에서의 변증법적 진행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헤겔의 개념변증법의 원리를 실재적 사물에 적용하려는 유물변증법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실재적 사물의 설명도 궁극적으로는 그 개념적 계기들에 의해 근거지워져야 한다. 따라서 변증법은 한도를 가진 실재적 사물에서 뿐만이 아니라 순수한 개념적 계기들의 과정에서도 관찰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념상의 규정은 계기들의 관계이며 관계가 바로 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에 대한 고찰 없이도 질만이 고려 될 수 있다. 따라서 개념적 계기들의 과정에서는 양질전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4) Hegel,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 108 Zusatz

유물변증법은 목적론과 같은 “관념론적” 전제를 거부한다. 유물변증법은 개념의 논리가 아니라 현실적인 객관세계의 논리이고자 하기 때문에, 대상들의 특수성과 그 발전의 고유한 내용에 따라 각기 상이한 발전기준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발전기준으로서의 복잡화, 구체화는 이 발전기준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엥겔스는 이에 대한 예로서 원시적 공동소유 → 사적소유 → 공산주의적 공동 소유로의 발전을 들고 있다.³⁵⁾ 이 경우 계급사회를 매개로 한 원시공동체와 공산주의 공동체는 소유의 사회적 성격이라는 같은 점을 바탕으로 하여 규정의 복잡화가 그 발전의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시 공동체에서 노예제, 노예제에서 봉건제로의 발전의 경우 등은 이러한 기준으로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 특히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대공업을 통한 다양한 관계의 단순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경제적 관계, 즉 계급관계는 잡색의 봉건적 연대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특정한 관계, 금전관계로 나타나는 자본관계로서 일반화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복잡화가 발전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헤겔은 목적론적 세계관을 전제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발전하며 그 발전의 방향은 모두 부정의 부정을 통한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에서 발전의 양식은 다양하며 부정의 부정은 그 중 한가지에 불과한 것이다. 말하자면 부정의 부정의 법칙은 모든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보편법칙이 아니라 특수한 발전의 양식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엥겔스의 세 법칙 중 양질전화의 법칙은 변증법의 보편법칙이 될 수 있으며, 목적론이라는 관념론적 전제를 폐기하는 한 부정의 부정의 법칙도 변증법의 보편법칙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엥겔스가 “대립물의 상호삼투”라고 표현한 모순만이 모든 변증법적 과정에 관철되는 보편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칙>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통상 대상의 고유한 성격에 무관심하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틀을 표상한다면, 모순조차도 변증법의 보편 <법칙>이라고 할 수 없다. 변증법은 사태의 변화에 따라 흐르는 논리이기 때문에, 형식논리에서와 같은 형식화된 법칙을 구축하는 일은 변증법의 논리성을 거르는 것이다. 엥겔스의 세 법칙도 형식논리학에서와 같이 변증법의 일반법칙으로 고정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엥겔스가 우려한대로 열려진 방법을 가로막는 닫혀진 체계의 기초로서 작용할 것이다.³⁶⁾

(2) 레닌의 대립물의 통일 및 투쟁의 법칙

엥겔스는 헤겔의 모순개념을 “대립물의 상호삼투”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대립자들이 상호제약하면서 상호배제하는 긴밀한 내적 통일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레닌은 대립의 통일, 통일의 대립을 통해 진행되는 모순의 성격을 담아내기 위하여 엥겔스의 표현을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이라는 표현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즉 레닌의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은 엥겔스의 “대립물의 상호삼투”보다 모순의 진행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것이라

35) Engels, 반두링론, 149쪽

36) 최신의 소련 철학교과서에서도 이 점을 인식해서인지 변증법장에서 기존의 세 법칙을 서술하는 대신에 존재의 보편적 연관, 양적·질적변화의 변증법, 발전과 진보 등의 항목들로 그 구성이 바뀌었다. (소비에트연방 과학아카데미, 철학 교과서의 목차를 참조)

할 수 있다. 현대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연구가들은 레닌의 표현을 모순에 대한 표현의 표본으로 삼아,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들을 첨가하고 있다. 그들은 “통일”이라는 개념을 대립자들이 서로 제약하면서 동시에 서로 배제하는 관계를 정식화 한다. 이 때 제약이란 헤겔이 말한 대립자들의 동일성의 측면을 말하며 배제란 구별의 측면을 말한다. 즉 대립자들이 구별을 포함하는 동일성으로서 존재하는 가능성(an sich)모순의 상태가 대립물이 상호 제약하면서 상호 배제하는 “통일”로 표현된다. 또 “투쟁”은 이 상호 제약하고 배제하는 대립물들이 상호 이것을 헤겔에서는 가능성 모순으로서의 구별을 포함하는 동일성이 대립으로 현실화되는 것을 말한다.³⁷⁾

그러나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만으로는 모순개념에 대한 완벽한 정식화가 될 수 없다. 필자는 앞 선 연구에서 “대립은 한 존재, 한 관계 안에서 대립하는 두 규정이 공존할 수 있는 관계인 반면, 모순은 한 존재, 한 관계 안에서 두 규정이 공존할 수 없는 관계”라고 대립과 모순을 구분하였는데,³⁸⁾ 상호제약하고 상호배제하는 대립물의 “통일”이 “투쟁”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전개되더라도, 대립물의 진밀한 상호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하나의 질이나 체계가 유지되는 한,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은 대립관계를 나타낼뿐이다. 따라서 하나의 질이나 체계를 구성하는 대립물들의 “투쟁”적 성격이 극에 달해 그 질이나 체계가 자기모순을 빛음으로써 다른 질이나 체계로 이행하는 “질적변화”的 규정이 모순의 규정으로서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에 부가되어야 한다.³⁹⁾ 이에 따라 우선 질적 변화 이전의 모든 대립물들의 상호적인 관계 및 운동은 엄밀한 의미에서 대립으로, 질적 변화의 시점에서 질이나

37) 레닌은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에 대하여, “대립물의 통일(합치, 동일성, 작용의 균형 상태)은 제약되어 있고, 일시적이며, 소멸될 상대적인 것”인 반면 대립물의 투쟁은 “발전과 운동이 그렇듯이 절대적”이라고 말함으로써(앞의 책 S.339) 존재에 대한 생성 우위의 세계관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통일”은 상대적이고 “투쟁”이 절대적이라고 해서, 상대적 안정성, 즉 자기동일성을 갖는 사물에 대한 인식이 우연이라는 의미의 일시적인 것은 아니다. 변증법적 인식에서도 인식은 자기동일적 사물에 대한 것이다. 단지 사물의 자기동일성이 영원불변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어서는 안되며 경과하는 역사적 관점 하에서 파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물(특히 유기체)의 구조는 변화를 통해 보존되기 때문이다. 변증법은 관계에 대한 인식을 중시하지만 근대기계론과는 다르다. 변증법은 사태의 구체적 조건에 따라 흐르는 논리이기 때문에, 사물에 고유한 내적 발전연관을 추적하며, 모든 사물에 무차별적인 외적·기계적 연관만을 탐구하는 기계론과는 다르다. 변증법은 근본적으로 사물에 대한 탐구이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 탐구이다.

38) 강순전, 앞의 글, 272쪽

39) 레닌의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이 대립의 통일, 통일의 대립과 같이 단지 모순의 전개방식 일반을 서술한 것일 뿐이라고 할지라도 (레닌이 “통일”을 “일치, 동일성”으로만 표현하고 “투쟁”을 “서로 배제하는 대립물들”의 운동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Lenin 앞의 책 s.339] “통일과 투쟁”은 그저 대립물들이 통일과 대립을 반복하여 전개되는 모순의 전개과정에 대한 일반적 서술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모순에 대한 완벽한 규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투쟁에서 통일로, 즉 대립이 통일로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상세히 규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레닌의 구분대로 양적 증감에 의한 기계적 운동과 질적 변화에 의한 변증법적 운동이 구분될 수 있다.

16 강 순 전

체계가 겪는 자기모순은 모순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그리고 나서 질적 변화 이전의 대립물들의 상호관계 및 운동 중 질적변화에까지 이르는 것들을 넓은 의미에서의 모순이라고 불러야 한다. 말하자면 모순이란 <질적 변화를 수반하는 대립물들의 상호관계 및 운동>이다.⁴⁰⁾

(3) 발전의 문제와 사회 및 자연영역에서의 변증법의 적용 문제

헤겔에게서 운동은 모순의 현존형태로 고찰되었다. 이 운동은 대립자들의 상호전화라는 과정을 통해 야기되는데, 대립자들의 상호전화는 직접적인 것을 정립된 것으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이후의 규정을 이전의 규정보다 풍부하게 한다. 말하자면 대립자들의 상호전화를 통해 야기되는 운동은 바로 발전과 일치한다. 이같이 변증법적 과정에서의 운동과 발전이 일치하는 것은 그 과정이 절대자의 자기실현이라는 목적론적 과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론이 제거되면 운동과 발전은 구분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는 변증법적 모순을 크게 운동모순과 발전모순으로 나누고, 변증법적 모순은 <모든> 운동의 원천이며, 발전은 운동의 <특수한> 형태라고 규정한다.⁴¹⁾ 호르스트만(H.Horstmann)은 운동의 세 가지 기본유형을 제시하는데, 첫째 유형은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대립물들의 운동으로서 여기서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생겨나지 않는다. 가령 흑성의 운동과 같은 단순한 역학적 운동이 그것이다. 둘째 유형은 가역적인 질적 변화와 비가역적인 양적 변화이다. 전자는 가령 H_2O 라는 근본질의 상이한 질들인 얼음, 물, 수증기간의 물리적 운동과, CN_2H_4O 가 NH_2OCN (암모니아)이나 $CO(NH_2)_2$ (요소)로 변화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총합 정식과 상이한 구조정식을 가진 화학적 결합의 경우이다. 또 후자는 한도의 범위 내에서 일어나면서 질적 변화를 준비하는 성장과정과 같은 것이다. 마지막 세번째 유형이 비가역적 질적 변화인 발전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이 세 가지 유형의 운동 모두를 변증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첫번째 유형의 운동이 변증법적 모순에 의한 변증법적 운동이라고 보는 것은 엉겔스의 영향이다. 엉겔스는 “사물을 정지하고 죽은 것으로 보고, 모든 것을 따로따로 분리시켜 보는 형이 상학적 사유방법”⁴²⁾으로는 “사물을 그 운동, 변화, 생존, 상호작용에서 관찰”할 때 모순에 빠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단순한 역학적인 장소이동 그 자체까지도 한 물체가 동일한

-
- 40) 모든 대립이 자기모순에 의한 질적 변화로까지 전개되는 것은 아니며, 모순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립만을 모순이라고 해야 한다. 가령 + 와 -, 남자와 여자는 대립개념이지만 이것들은 단지 개념적인 상호관계이지 상호작용을 통해 모순에 이르는 대립이 아니다. 또한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에 의해 질적 변화를 야기시키지 않는 대립물들의 상호작용은 그것이 비록 역동적이라 할지라도 그저 상호작용이라고 불러야 한다. 따라서 모순에 대한 탐구는 대립들 중에서 모순에 이르는 대립을 확정하고 그 전개방식을 탐구하는 것이다.
- 41) 이에 대한 논의는 G.Bartsch(편집), Der dialektische Widerspruch 3장 3절 운동 모순 및 발전 모순 참조
- 42)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형이상학”이란 철학의 특정한 부문을 말하거나 세계에 대한 독특한 사변적 파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비변증법적인 사고와 인식방법을 뜻한다. (철학의 기초이론, 27쪽)

순간에 동일한 장소에 존재하면서 그 곳에 존재하지 않는 데서 이투어지는 것”이라고 운동의 모순적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⁴³⁾

엥겔스의 이 예와 설명은 헤겔의 『엔찌클로페디』 81절의 주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인에, 헤겔은 이것을 우리가 통상 변증법이라고 할 때 생각하는 넓은 의미의 변증법(헤겔의 논리적인 것에 대한 분류에서 세번째 사변적 혹은 궁정적 이상적 계기)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변증법(두번째 변증법적 혹은 부정적 이상적 계기)의 예로서 제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흑성의 운동과 같은 단순한 역학적 운동은 좁은 의미의 변증법적 계기에 속하는 것이다. 이 때의 변증법적이란 헤겔의 설명에 따르면 유한자가 자기모순으로 말미암아 유한한 규정의 일면성과 제한성을 스스로 부정하여 자신의 대립자로 이행하는 계기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이상은 고정된 규정을 해체하는 파괴적 기능만을 일삼을 뿐이므로 사유가 여기에 머무는 데 그친다면 공허하고 추상적인 무(無)만을 결과로 갖는 허무주의에 빠지고 만다고 헤겔은 지적한다. 따라서 변증법은 이전 단계를 부정하여 보존하는 규정적 부정에 의해 보다 풍부한 규정을 획득하는 “사변적” 계기에서 성립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두번째 부정적 이상적 계기는 첫번째 오성적 계기에 대한 부정으로서 오성적인 것의 한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지 그 자체가 진정한 의미의 변증법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엥겔스의 역학적 운동에 대한 설명도 역학적 운동이 변증법적 모순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형이상학적” 사유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두번째 유형의 운동은 질적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질적 변화를 예비하는, 즉 질적 변화의 계기라는 점에서 첫번째 유형과 다르다. 이 예들이 대표하는 물리적, 화학적, 그리고 일부의 생물학적 운동이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설명되는지는 구체적인 자연과학적 이론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설명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필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단지 원리적 측면에서, 여기서 일어나는 질적 변화의 성격과 관련하여 고찰해 볼 때, 여기서의 질적 변화는 가역적이기 때문에 발전에 속하지 않는 운동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질적 변화에 의한 운동은 운동의 특수한 형태인 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 운동형태에 속하는 것이다.

발전이 이러한 운동과 구별되는 특수성은 우선 비가역적 질적 변화라는 점이다. 확실히 비가역성이라는 성격은 운동에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발전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비가역적인 진행일지라도 진보적인 방향으로의 발전이 아니라 퇴보적인 과정 또한 가능하다. 따라서 일정한 방향으로의 진행이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후의 계기가 이전의 계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낫다는 점이 제시되어야 한다. 헤겔에게서는 변증법적 과정이 개념의 목적론적 전개이기 때문에 이 발전기준은 개념규정의 풍부화, 구체화라는 단일한 것으로 제시되지만,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대상의 고유한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발전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 기준은 가령 반영능력의 증가, 복합성, 복잡성의 증가, 분화의 증가, 유기성, 안정성의 증가, 다른 한편으로 단순화, 질적으로 새로운 연관들의 영역에서 기능의 더 나은 수행 등등이 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모순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질적 변화를 수반하는 대립물들의 상호관계 및 운동>이라는 모순규정은 발전모순을 포함한 운동모순에 대한 규정, 즉 모순 일반에 대한 규정이며, 운동모순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발전모순에 대한 규정은 비가역적이라는 종차와 함께 그 대상에 고유한 발전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같이 마르크스주의는 운동모순과 발전모순을 구분하는데, 이 점에서 유물변증법은 헤겔 변증법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헤겔 변증법에서 모든 운동은 발전과 일치되기 때문에, 모든 변증법적 과정은 이전 단계의 부정을 자신의 계기로서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헤겔 변증법의 근본적 특성을 인식한 레닌은 변증법적 과정이 나선형의 원운동이라고 말하였지만, 레닌의 이러한 언명은 이미 운동모순과 발전모순을 나누는 유물변증법의 물적 토대와 정합될 수 없는 이념이다. 사태가 자신의 부정을 부정하여 자기복귀하는 원운동을 통해 자신의 규정을 풍부히 하는 과정은 헤겔 변증법에 고유한 변증법적 과정의 전개방식이다. 유물변증법에서는 발전모순의 전개방식도 반드시 이러한 부정의 부정의 과정은 아니며, 더욱이 운동모순은 더욱 그렇다. 운동모순이 질적 변화를 수반한다 할지라도 변화가 가역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순환 반복될 수 있으며, 이것은 중감이나 반복으로서의 발전(전개)과 대조적인 의미로 레닌이 부각시킨 대립물의 통일로서의 발전(전개)과도 배리적인 것으로 보여진다.⁴⁴⁾ 그러나 이러한 운동모순에 의한 변증법적 과정이 자연영역에서의 변증법적 설명에서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자연 및 사회영역에서의 변증법의 적용 문제와 관련해 볼 때, 주로 자연영역에서의 변증법의 적용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자연 및 사회영역에서의 발전 문제와 같은 선상에서 제기되었다. 사회는 의도와 목적을 갖는 인간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가 인간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그것을 발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발전의 기준은 행위자들의 당면 목표의 달성이 된다. 그러나 자연에서는 정말 발전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된다. 이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앞에서 말한 여러 발전기준을 제시한다. 사실 자연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인간의 목적, 의도의 달성이란 단일한 기준만으로 발전이 고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발전기준이 보충되어야 한다. 이 발전기준들이 발전기준으로서 받아들여진다면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의 영역에서도 발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는 운동모순과 발전모순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및 사회영역에서의 발전의 문제와 변증법의 적용 문제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자연영역에서의 발전이 없다 하더라도 운동^o 있는 한 운동모순에 의한 변증법적 설명은 가능하게 된다. 유물변증법에서 자연변증법의 타당성 여부는 개별과학의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서만 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과 사회에서의 변증법의 적용 문제도 본 논문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44) Lenin, Philosophische Hefte,S.339. 발전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구별한 후 바로 다음 단락에서 “첫번째 운동 개념은 자기 운동, 그것의 추동력, 원천 및 동인이 알려지지 않는다”고 한 점으로 보아 “Entwicklung (Evolution)” 개념은 특별히 발전개념을 운동개념과 구별하여 칭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일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III. 헤겔 변증법의 계승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 변증법

마르크스주의는 변증법을 제외한 여타의 분야에서 헤겔 철학에 대한 내용상의 비판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헤겔의 이론과 상이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변증법 분야에서 만큼은 헤겔 변증법의 대부분의 내용을 “전도”를 통해 수용하고 있다. 특히 엥겔스와 레닌에 의해 이루어진 헤겔 변증법에 대한 집중적 탐구는 유물론적 해석을 통해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은 헤겔 변증법의 직접적인 계승자이다. 그러나 이 계승은 기계론파와 변증법파와의 논쟁⁴⁵⁾과 같은 시련을 거쳐 이루어졌다. 이 시련은 “관념적”인 헤겔 변증법이 유물론과 접목되는 과정에서, 변증법이 객관세계에 대한 과학적 탐구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세련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논쟁은 1929년에 열린 마르크스-레닌 과학 연구학회의 제2차 전소비에뜨 대회에서 기계론파가 철학적 수정주의 노선으로 규정됨으로써 변증법파의 승리로 귀결 되었지만,⁴⁶⁾ 스탈린 사후 50년대에 신기계론파와 신데보린주의 논쟁으로 기계론파의 많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가령 교과서에서도 “질”에 대한 설명에서 “체계”개념을 더불어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질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규정과 과학적 설명을 가능케 하였으며, 헤겔에게서보다 더욱 상세한 구조연관을 제시함으로써 모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객관세계의 대상성에 주의하고자 하는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은 변증법을 과학적 성과와 접목시킴으로써 헤겔 변증법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르크스주의는 헤겔 변증법을 과학적 성과와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헤겔 변증법의 이념을 간과하거나 변용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두 이론의 존재론적 토대가 다른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엥겔스의 세 법칙은 변증법의 계기적 측면을 과학법칙과 같이 형식화하거나(양질전화의 법칙) 존재론적 토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칙을 일반화(부정의 부정의 법칙)함으로써 변증법의 유기적 성격을 상실케 하였다. 또한 존재론적 토대가 달라졌음에도 변증법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운동모순과 발전모순을 구분하였을 때, 운동 모순에 의한 변증법적 설명은 헤겔변증법적 설명은 헤겔 변증법의 이념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부분적인 수용상의 문제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은 헤겔 변증법의 진정한 이념을 객관적 현실세계의 논리로서 관철하려고 하였다. 변증법은 본래 사태의 논리이며 열려진 과정이다. 객관세계의 반영이라는 유물변증법의 이념은 사태의 논리로서의 변증법의 이념과 일치하며, 이 이념의 올바른 관철은 객관적 대상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45) 1920년대의 부하린 - 데보린 논쟁을 말한다. 변증법의 세가지 기본법칙에 대한 이 논쟁의 쟁점은 스캔런의 앞의 책 제3장을 참조

46) 소비에트 연방 과학 아카데미, 철학 교과서 I, 361쪽

참 고 문 헌

- Afanasyev, V.G., *변증법적 유물론* (김성환역), 백두, 1988
- Bartsch,G.,(편집) *Der dialektische Widerspruch*, Verlag Marxistische Blätter, 1986.
- Eichhorn I,W., *Marxistisch-leninische Philosophie*, Dietz Verlag Berlin, 1982.
- Engels,.F., *Dialektik der Natur*, Marx-Engels Werke(이하 MEW) Bd. 20 Dietz Verlag Berlin 1987.
- , *반두링론*(김민석역), 새길, 1987.
- , *포이어바흐와 독일고전철학의 종말*(양재혁역), 돌베개, 1987.
- Hegel,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en* I, Werke in zwanzig Bänden 9, Suhrkamp Verlag.
- , *Wissenschaft der Logik* I.(2판) Gesammelte Werke 21, Felix Meiner Verlag Hamburg.
- Hörz, H., *Marxistische Philosophie und Naturwissenschaft*, Pahl-Rugenstein Köln, 1974.
- Ilyenkov, E.V., *변증법적 논리학의 역사와 이론* ,(우기동, 이병수역), 연구사, 1990.
- Kojeve, A., Hegel, 역사와 현실 변증법 (설현영역), 한 벗, 1981.
- Konstantinov, F.V.,(편집) *철학의 기초이론*, 두레, 1986.
- Lenin, V.I.,*Philosophische Hefte*, Werke 38, Dietz Verlag Berlin, 1981.
- , *유물론과 경험비판론*, (정광희역), 아침, 1988.
- Lotter, K., (편집) *Marx-Engels Begriffslexikon*, C.H.Beck München, 1984.
- Marx, K., *Kapital* I, MEW 23.
- , *경제학 철학 수고*, (김태영역), 이론과 실천, 1985.
- Oiserman, T.I., "Lenin und die Hegelsche Konzeption der Einheit von Dialektik, Logik und Erkenntnistheorie" in *Hegel-Jahrbuch* 1974, Pahl-Rugenstein, Köln.
- Scanlan, J.P., 소련의 마르크스주의, (강재문역) 명문당, 1989.
- Steußloff, H., *변증법적 유물론* (권순홍역), 세계, 1989.
- Stiehler, G., *Der dialektische Widerspruch*, Akademie Verlag, Berlin, 1966.
- 강순전, “헤겔 변증법의 논리성” 철학 연구 27집, 천지, 1990, 가을
소비에뜨연방 과학아카데미, 졸학교과서 1,(이성백역), 사상사, 1990.
세계철학사 II, 녹두